

‘유기농식품 유익성’ 일반농산물과 차이 없어

소비자 상반된 메시지로 ‘깊은 혼란’, 과일·채소 많이 먹는 것이 더 중요

아이들을 보다 건강하게 먹이기를 원하는 부모는 비싼 유기농산물을 사주기보다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영국의 저명한 영양학자가 말했다. 식품기준청장을 지낸 Lord Krebs 씨는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상반된 메시지 때문에 가정들이 ‘깊은 혼란’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유기농 식품의 시장은 20억 파운드를 돌파했고, 이들 중 대부분은 1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주부였다. 주로 영국의 남동부에서 평균 3700만 파운드가 매주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는데 쓰였다.

식품기준청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식품의 장점에 대한 정의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영양학적 차이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재검토하였다. 그런데, 현재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해야 할 안전과 건강상의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최근의 두 가지 연구는 유기농 토마토와 유기농 우유를 마시는 것이 신선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데만 이로울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스퍼드 Jesus 대학의 학과장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krebs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만약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사주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다.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채소를 더욱 많이 먹이거나, 소금을 적게 주는 것이 보다 올바른 선택이다. 유기농 식품 주장에 대한 그의 염려는 ‘사람들이 무엇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Krebs씨는 식품기준청에 재직할 당시 유기농 식품이 사람들에게 더 좋다는 주장을 증명해야한다는 강요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식품들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Soil Association은 유기농식품이 건강을 위해 매우 좋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기농식품과 비유기농식품의 영양학적 구성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기농 식품이 평균적으로 철, 칼슘, 마그네슘, 인과 비타민C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이 협회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생산된 작물과 우유가 비타민과 항산화성분과 같은 이

로운 물질을 대체적으로 더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들은 채소작물에서 40% 이상, 우유는 90%이상 이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Krebs씨는 "나는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직하게 진실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공정한 증거에 기준해 그들 스

스로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기준청의 대변인은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유기농 식품과 비유기농 식품 사이의 영양학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증거들로만은 유기농 식품이 관행재배 식품보다 더욱 영양가 있고 안전하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 관심 높아져도 주춤하는 유기농산물

중 국식품의 중독사건 등으로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의 공급이 신장되지 않고 있다.

슈퍼 등 소매업체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등에서도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농산물 전체의 0.17%에 불과하다. 가격이 비싸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데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수익성이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유기농산물을 보급하려면 판매와 견고한 생산방법의 확립이 열쇠가 될 것 같다.

최근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의 兵庫縣 유기농업연구회에는 외식산업으로부터 「유기농가를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슈퍼 등에서는 유기채소코너를 설치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러나 매장에서의 매출은 부진하다. 유기농산물의 가격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인건

비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하는 관행농산물보다 가격이 훨씬 높고 형태나 크기 등이 고르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청과판매 「米島」의 米島信一 사장은 「소비자의 구입기준은 외형과 가격, 구매자는 대부분 고정고객」이라 한다. 농림수산성이 이번에 공표한 일본농림규격(JAS)법에 근거한 2006년도의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0.17%이다. 이는 기준을 설정한 유기 JAS제도 출발 후인 2001년도의 0.1%에서 조금 증가한 정도이다. 보급이 안 된 배경에는 생산자측의 사정도 크다.

유기농업은 다른 품목을 혼식재배하여 병해충 방제효과를 올리는 다품종 소량 재배법이 일반적이다. 시금치 등 특정채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외식산업의 소요량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

베트남, 쌀은 있는데 쌀값 상승

베트남 국내의 쌀값이 연초부터 20% 올라 다른 물가의 인플레이션 고조와 함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는 주요한 쌀 수출국의 수출제한에 의한 가격상승을 지적하는 한편 개별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굶을 정도는 아니지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의 쌀 가격은 새해가 되고 나서 20% 상승하여 현재 1톤당 740달러이다. 인플레이션 고조와 함께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3월말에 구엔탄즌 수상은 당국에 대하여 올해는 쌀의 수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 식량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FAO의 잭 디우프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뉴델리에서 기자들에게 주요한 쌀 수출국이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개별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격상승의 다른 요인으로서 기후변동, 재고감소, 신흥국의 식육, 우유 소비 상승, 바이오에너지 생산, 연료와 수송비용 증대, 자연재해를 들었다.

확실히 베트남에 있어서도 자연재해는 문제이다. 작년 10월 3일 태풍 레키마가 중부지방을 덮쳐 홍수를 일으켰고 2월에는 전례가 없는

45일의 냉해가 있어 10~17만ha의 논이 파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풍부한 남쪽의 메콩강 유역에서 겨울과 봄철의 수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악천후에 휩쓸렸지만 올해는 풍작이 전망되고 있다.

UNDP의 시니어 에코노미스터 조나단 핀카스는 「베트남은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가격을 지키려 하고 있다. 공급량에는 문제는 없고 가격이 문제다」라고 말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율에 주목하고 있다. 작년 1분기의 인플레이션 9.2%로 농약가격은 75% 상승했다고 현지 미디어가 전하고 있다. 연료값도 상승하여 쌀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제가격의 상승과 함께 수출량은 증대하여 수익도 오르고 있지만 거기에 동반하여 국내가격도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태풍 레키마 이후 구호에 들어가 있는 국제적십자사의 이리야 산드바그씨는 「굶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추운 계절에는 더 어렵다」라고 말한다. 핀카스씨도 「식량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빈곤층에게는 가격상승의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IPS기자에게 말했다. 태국에 이어 그 다음으로 세계 쌀 2위의 쌀 수출국 베트남에서 국제가격의 상승과 높은 국내의 인플레이션 율이 빈곤층에게 쌀의 공급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Y